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57. 일곱째 나팔 사건

2014. 02. 02.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새 해도 벌써 1월 마지막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실상에 대하여서 공부하고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으나 다시 살아나게 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1:15~18]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6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18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른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한 다스리는 하늘나라가 된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천국이라는 말은 오직 마태만이 사용했고 다른 데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왜 마태가 그렇게 썼는지 이유를 오늘 이야기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답: 그랬지요. 오늘 그 이야기부터 하지요. 유대인들은 성경의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시다. 십계명의 셋째 계명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 글자는 있어도 발음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것은 기원 5,6세기에 유대인 전통을 살리려고 발음기호를 만든 학자들이 만든 발음이거든요. 원래 발음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요즘은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서 야훼라고 발음을 찾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정말 그랬는지도 잘 모르지요. 그런데 기원전 200년경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인 엘로힘도 거룩하다고 발음하기를 조심했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말 대신에 샬마임, 즉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샬마임이라고 하면 엘로힘을 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하늘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조심스러워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잘 아는 마태는 그들이 사용하는 하늘나라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말이 32번 나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외에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지요. 그래서 천국, 즉 하늘나라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만 있게 된 이유입니다. 한글성경에는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말이 37번 나오는데, 다섯 번은 천국이라고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그냥 헤 바실레이아인데, 왕국, 또는 나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데, 문장 전체로 봐서 천국이라고 번역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것이고 덤후

4:18도 같은 헤 바실레이아입니다. 정말 천국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은 오직 마태복음에 32번 밖에 없습니다.

2. 예, 그렇게 된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군요?(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고 한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마태의 표현대로는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이군요.(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은 천군천사들이 함께 외치는 소리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군요.

답: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봅시다.

[계11:16~18]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18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구절을 보니까 큰 소리로 외친 존재들의 신분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은 24장로들뿐이네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네 생물이 큰 소리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외치고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냥 경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고백적 찬양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7중 찬양은 7:12절에도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맨 먼저 감사합니다.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은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에는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지요. 처음에도 감사, 중간에도 감사, 마지막에도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구원받아 신천신지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 감사가 얼마나 벽차고 넘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먼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존재의 영원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장 8절에도 나왔고 4:8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장차 오실자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그 말은 빠졌습니다. 아마도 이미 세상 나라에 오셔서 왕 노릇하시는 상태를 찬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차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셨다는 말이지요. 계시적 현장에서는 그렇지요. 셋째는 전능하신 이라는 찬양입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신약성경에 10번만 나옵니다. 고후6:18에 한 번 있고 나머지 9번은 다 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에 처음 나온 곳이 1:8이고 다음이 4:8입니다. 그리고 11:17이 세 번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찬양이면서 여기서 구원을 완성하신 일과 관련하여 찬양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찬양은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다는 말과 관련된 표현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에게 속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죄를 완전히 없애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결단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사단이 대적했지만 이제 그의 대적하는 일이 끝났다는 사상이 포함된 고백이지요. 그것이 다섯째 찬양 내용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방들이 분노하는 것은 둘째 부활에 참여한 악인들이 성도들

이 진과 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대적한 모든 세력의 총칭인데, 계시록에는 계속적으로 나타는 세력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고 12장, 13장에는 이방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설명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여기서는 세상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것과 관련되어 기록되었기 때문에 둘째 부활에 참여한 악인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18절을 12장 이후에 기록된 계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합리적인 이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은 이것을 이방들이 분노한다고 한 것을 12~14장의 내용이고, 주의 진노가 내린다는 것을 15~18장의 사건,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19~20장, 종 선지자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준다는 말을 19:1~10, 21,22장,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벌하는 것을 19:11~20:15까지의 사건의 요약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맞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때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분노하는 이방은 둘째 부활한 악인들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본문에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요. 다섯째 찬양 중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말이 있지요. 주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롬 1:18에 기록되었는데, 아마 여러 번 말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을 수행한 사람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숨이 끊어졌다는 뜻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계20:12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3. 그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답: 그렇게 합시다. 내가 너무 길게 설명하고 있으니깐 잠깐 쉬기도 할 겸 찾아봅시다.

[계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은 천년기 후에 있는 심판 장면을 보여주신 것인데,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계시적 형상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 죽은 것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적 형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한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들이 되어서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잘 아는 성경말씀이 있잖아요. 요일5:11,12입니다.

[요일5:11,12]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육체의 생명은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입니다. 그들을 심판해서 각자가 행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섯째 찬양의 내용은 “종 선지자들과 성도

들과 또 무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생명이 있습니다. 20:11,12에 있는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지요. 마지막 일곱째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끝납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는 루시퍼와 그를 따른 천사들과 그들의 속임수를 진리라고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선 사망의 죄를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아름답게 단장한 이 지구에 끌어들어서 지구를 죄의 세상이 되게 한 것이 땅을 망하게 첫째 사항이고 다음은 죄인이 된 사람들이 이기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물질적 이득이 있다고 생각되면 천연계를 마구 훼손하여 땅을 망하게 했습니다. 대기 오염 온난화 등등, 이 모든 것이 땅을 망하게 한 일이지요. 그들이 이 죄의 세상을 불로 정결하게 할 때에 그 불에 소멸될 것입니다.

4. 그러면, 목사님, 의인이 상을 받는 것과 악인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같은 시기에 있다는 말입니까?

답: 당연히 그렇지요. 요전 언젠가 영혼불멸 사상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세히 설명했지요. 마태13장 40과 43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다시 한 번 읽어볼까요? 아마 38절부터 읽어야 할 것입니다.

[마13:38~43] 밭은 세상ियो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यो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주시면 자세히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여기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에도 천사가 와서 악한 자들을 거두어서 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 때에 의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납니다. 그러니까 다 세상 끝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계11:18에 한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행하는 것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집행되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다 영원한 불에 소멸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지구를 재창조하시고 의인들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완전한 성취입니다.(마5:5) 하나님께서는 일곱 나팔 사건을 상징적 계시로 보여주는데 심판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에 대한 심판인데 일곱째 나팔이 최종적 심판이지요. 이것이 마지막 화입니다. 모든 것이 종결되고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지요. 첫째 나팔이 초대 교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사도들과 성도들을 크게 핍박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둘째 나팔에서 그리스도 교회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극심하게 핍박한 로마제국을 심판하시고 셋째 나팔에서 심판 받고 하늘에서 쫓겨

난 루시퍼를 광명한 천사로 영접한 세속화한 교회에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심판하셔서 넷째 나팔에서 세상이 암흑시대가 되었고, 다섯째 여섯째 나팔에서 이슬람 세력을 일으키게 버려두심으로 변질된 교회를 심판하시고 또 1260년 동안 두 증인인 성경을 핍박한 결과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변질된 교회의 총 수장을 감옥에 넣는 심판을 행하셨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영원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마침내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나라를 친히 통치하시는 그 때가 바로 죄와 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계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12장부터는 세상에 이런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고 진행된 그 배경을 처음부터 상징적으로 계시해보여주십니다.

5. 일곱 나팔에 대한 계시가 참 어렵게 생각되었는데, 지금 간단하게 요약해주셨습시다만, 그렇게 이해하니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말 42달인 1260년 후에 교편로마의 수장이 프랑스에 포로 되어서 감옥에서 사망한 것은 아주 확실한 심판의 모습이네요.

답: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연구방법은 역사주의적 방법이잖습니까. 역사주의적 이면서 그 해석을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셋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를 정신적 사상적 상태로 풀이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대로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지요?(그렇습니다.) 이렇게 18절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심판과 관련된 계시를 보여주시고 19절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6. 그러면 19절 장면도 심판과 관련된 장면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19절은 심판의 표준이 무엇인지 나타냅니다. 읽은 다음에 이야기를 나눕시다.

[계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린다고 했는데, 11장 시작하면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성전 측량한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표준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열린 문을 네 앞에 둔다고 했지요. 그때 19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열린 문과 성전이 열리는 것은 같은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로는 빌라델비아 시대이고 심판으로는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 여섯째 나팔 시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일곱째 나팔에 대한 구절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곱 나팔 사건, 더 크게는 일곱 교회, 일곱 인도 포함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 곧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을 보여주신 것이고, 19절은 그런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언약궤가 있는 장소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성소의 둘째 칸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심

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에 성소정결을 할 때에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봉사하는데, 성소정결봉사가 곧 심판의 봉사가 된다는 것을 10장과 11장 시작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요. 지성소봉사, 곧 성소정결봉사는 심판봉사라고 했지요. 그 심판의 근거가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표현한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십계명을 생명의 도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행7:37,38을 읽어봅시다.

[행7:37,38]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은 십계명 돌 판이지요. 물론 그 외의 많은 말씀들을 전했지만,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그것을 “생명의 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거절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은 생명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지요. 죽은 자들은 생명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그 생명의 길이 바로 십계명으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생명이 걸어가는 궤도를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그 궤도가 바로 십계명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2:10~12]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씀은 심판하실 때 십계명대로 심판받는다고 했지요. 자유의 율법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11절 첫 부분 말씀을 보면 분명하지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입니다. 하늘의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은 그 안에 십계명이 변경된 일이 결코 없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비에 기록하여 주신 내용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햇불같이 타는 별로 내려온 루시퍼가 교회에 썩을 먹이면서 내용을 고쳐서 요즘은 대부분의 교회가 제7일 안식일이 아닌 첫째 날을 주일이라고 예배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계1:10을 설명할 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42달 동안 성전 마당을 짓밟는 세력이 그렇게 하였는데 배후는 바로 햇불처럼 타는 밝은 별로 하늘에서 떨어진 루시퍼입니다.

7. 루시퍼가 배후의 장본인인 것은 확실한데 성경으로 그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답: 물론이지요. 딤편 3:6을 한 번 읽어봅시다.

[딤편 3:6]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이 말씀은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할 때 어떤 사람을 선출하면 안 되는지를 지시하며 한 말씀인데 새로 입교한 자에게 장로를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귀 루시퍼의 정죄 죄목이 교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119:85을 읽으면 교만이 무엇인지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 태도를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시119:85]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옹덩이를 팠나이다.

이 말씀은 주님의 법을 좇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법을 거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이 말씀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스바냐 2:3을 볼까요.

[습2:3] 여호와와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겸손이 여호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지요.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루시퍼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법 지키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심판받고 쫓겨난 것이지요. 세상에 와서 인류의 시조에게 같은 정신을 주입시킨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바른 해석을 했을 때 교회는 그것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루시퍼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도록 한 것이지요. 그 결과 교회가 변질 되었습니다.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에서 이런 사실을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8. 루시퍼가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한 장본인이 확실하네요. 그런데 목사님 시간이 되었네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청자들도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 바르게 깨닫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신천신지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 만나도록 확실하게 예수님을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오늘도 힘 있게 신앙생활하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